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 영역 온라인 설명회 1회차

by. Kicemaster

오르비 Kicemaster

포만한 Kicemaster

수만화 Kicemaster

인스타 @kice_master

유튜브 Kice Master

오픈채팅 무료상담

Kicemaster 검색

or

<https://open.kakao.com/o/sILXFSLd>



www.kicemaster.com

목차

I. 서론 (스킵 금지)

1. 머리말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3. 6월 9월 모의평가란
4. 결론

II. 국어 (2회차부터 나뉘서 추가 예정)

III. 수학

IV. 영어

V. 탐구

VI. 수험 생활

I. 서론 (스킵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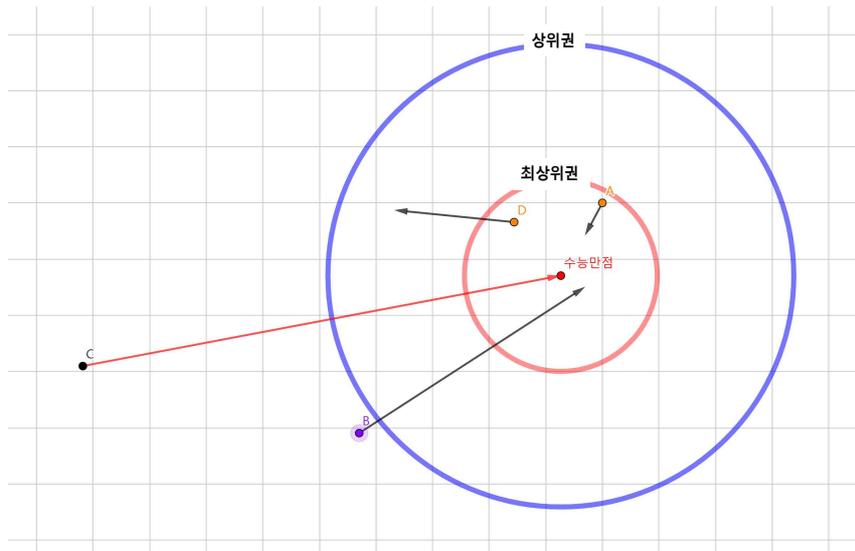
1. 머릿말

우선 이 글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100%로 믿기 보다는 베이지주의자처럼 강한 정보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이미 알고 있을 뻔한 내용은 배제했으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디지털 매체로 인한 문해력 감소에 대한 배려로 최대한 간결하게 적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론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 안의 사고 과정을 천천히 같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대중 읽을 거면 읽지 마시고 주무세요.

꼭 이 칼럼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지 아니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A 자만, 공부량 아쉽 / B 방향성 아쉽 / D 방향성 이탈 /
C 방향성 정확, 공부량 정확)

수능은 벡터입니다. 방향성과 크기가 중요합니다.
단 0.1도만 바뀌어도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꼭 학생 C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우선, 평가원 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이 3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일단 뒤로하죠.

하지만 현재 논란이 유독 심하죠? 이 3가지가 다 지켜진 해는 언제일까요? 최근 몇 년간 N수생의 대거 유입으로, 이 3가지는 전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피크를 찍는 중입니다.

N수생들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러들의 최저로 인해 과목 집중화, 객관식 시험의 한계인 찍맞 등으로 수능 고득점을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탄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저희의 최우선적 목표는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수능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고3 학생들은 쉽게 수시 카드를 버리고 정시파이터가 되며, 쉽게 n수를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재수 3수 4수... 예전 수능에 비해 n수생의 수뿐만이 아니라 n의 숫자도 커집니다.

수능은 운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수능 날 걸리는 감독관, 컨디션, 찍는 번호 등등... 특히 탐구과목은, 1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거나 특정 과목 뽑기 운까지....

요약하자면, 수능은 겁. 나. 어렵습니다. 당신이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객관적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능 겁으라는 말인가요?”
“정시러는 무조건 망한다 이런 악담인가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요?”

전부 그 반대입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제대로 공부하자 이겁니다.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본 자세야” - cvMax 감독 -

<https://www.youtube.com/watch?v=Da-w4SVLhU>

(시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8:15 ~ 12:20)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공부를 합시다.
무작정 풀커리를 타고, 강사에 전부 의존하고, 자기위안삼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약점을 찾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메우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3. 6월 9월 모의평가란

평가원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모의평가'의 목적

-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 및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이걸 똑바로 못 본 학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원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1.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 및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2.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6월 9월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는 오류도 꽤 발견되고, 중의적 문장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의심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 아니니 이의제기도 적고, 답도 명확한 편이니 그냥 넘어가죠.

공식 사이트에 과연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째 문장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라는 말이 있나요?

요지는, 어느정도 평가원에 대한 절대성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가원 성선설을 아시나요? 과거에는 몰라도 이미 깨진지 오래입니다. (못믿으시겠으면 올해 생명과학2 오류에 대한 평가원의 대처를 보십시오.)

모든 기출문제(6,9,수능)이 완벽할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희가 모의평가를 잘치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그저 모의평가는 공부의 재료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능을 잘치기 위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결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여기서 배운 게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새롭게 배우는 데에 목적성을 두기보다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큰 지표입니다.

이 짧은 칼럼에서 목차만 보고 요지가 떠오르나요?
떠올려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목차

1. 머리말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3. 6월 9월 모의평가란

1. 머리말

“대충 공부 열심히 잘하란 얘기?”

2.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와! 수능! 겁. 나. 어렵습니다.”

3. 6월 9월 모의평가란

“6, 9 쫓까라는 말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읽던지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잡생각은 전부 버리고, 가장 큰 틀을 단단하게 다진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본인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세요

초반엔 피드백 시간을 늘려도 좋으니, 너무 달리지 마시고 자신을
피드백하시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